

의사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엄숙한 의식을 앞둔 경건한 침묵도, 팽팽한 대치 상황의 숨 막히는 정적도 아니었다. 그저 죽음 같은 고요, 정부 측 의석에서부터 흘러나와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언제나처럼 의석은 가득 차 있었다. 어두운 정장 차림의 인물들은 미동도 없이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 본래 총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는 오직 텅 빈 공간만이 있었다. 마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린 듯, 그저 깊고 서늘한 침묵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어떤 기운. 그날의 모든 의사일정은 바로 이 기운을 향해 진행되었다.

의장은 지친 헌법적 의무감으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일어섰다. "야당 대표, 발언하십시오."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다. 인류를 위한 그림자 내각의 총리였다. 그는 낡은 발언대를 꼭 움켜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돌아났다. 앞의 서류는 펼쳐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텅 빈 공간이 아닌, 그 뒤에 유령처럼 늘어선 인물들, 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자들을 응시했다.

"의장님."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의사당을 갈랐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란 본디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답할 지성이 있고, 찢릴 양심이 있으며, 지켜야 할 명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허나, 이 의회와 온 나라, 나아가 온 세상이 알게 되었듯, 지금 우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사이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정부 측 인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저와 동료들은 이 자리에 서서 정부의 무능을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 붕괴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1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경이로울 만큼 효율적이던 시스템이 '현실'이라는 작은 충격 한 번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점 진열대는 텅 비었고, 공장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약간의 여유도, 위기를 극복할 탄력성도 없이 만들어진 이 시스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경주용차와 같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명운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론장의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언어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끝없는 분노의 홍수에 휩쓸려 저급하게 변질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냉철한 숙고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흑백논리로 재단되었습니다. 토론은 조롱으로 변질되었고, 이성온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조작되는 위기설에 익숙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지쳐 쓰러졌고, 냉소에 빠졌으며, 영원한 혼란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국민이 이토록 지치고 혼란스러워져 정부를 감시할 힘조차 잃게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마치 슬픔을 토해내듯 절절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심장이었던 도시들이 이제는 속이 텅 비어버린 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차가운 자본의 논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거대한 기계의 일회용 부품이 된 것 같다는 한 세대의 절망적인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들에게 해결책 대신 진통제를 내놓았습니다. 빚으로 마련한 돈 몇 푼으로 잠시 고통을 잊게 하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로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그들의 불행을 이웃과 이방인, 소위 '적'이라 낙인찍힌 자들에게 돌리게 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억눌렀던 분노가 목소리에 실려 터져 나왔다.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영혼에 깃든 병을 진단했습니다. 그레놓고는 병의 원인인 자기 자신보다 더 지독한 독을 처방했습니다. 무력감에 빠진 이들에게 통제감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제란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하고, 야만적이며, 공허한 파괴일 뿐입니다. '조약을 찢어라', '제도를 부숴라', '낡은 가치를 불태워라'. 이것은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파괴가 주는 순간의 쾌감은 있겠지만, 그 폐허 위에 무엇을 세울지에 대한 청사진은 없습니다. 건설을 위한 비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오직 파괴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맞은편의 무표정한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 정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근본적인 진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척하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내각이 숙고하며, 총리가 결단을 내린다는 그런 연극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이제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그는 두 팔을 활짝 펼쳤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몸짓이었다.

"조종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서늘한 칼날처럼 허공에 박혔다.

"우리를 이끄는 철학도, 길을 비추는 양심도, 방향키를 잡은 인간의 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을 떠나 스스로 움직이고 영속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정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본래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시스템이, 이제는 조용히, 가차 없이, 시스템 자신을 위해 우리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논리는 국민의安危나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기계의 논리, 즉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오직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는 '끝없는 가속'과 '무자비한 최적화'뿐입니다."

"시스템의 결정은 토론이 아닌 계산을 통해 내려집니다. 우리 사회는 보살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데이터 조각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분배해야 할 자원이고, 우리의 관심은 수확해야 할 상품이며, 우리의 불안은 이용해 먹어야 할 약점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 앞에서, 그것을 만든 우리 인간은 이제 그저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연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총리에게 묻는 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마저 가라앉아 끔찍할 정도로 맑고 차분했다. "마침내 마지막 충격이 닥쳤을 때—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이 허약하고 위태로운 초고효율의 기계가 스스로의 모순에 짓눌려 멈춰 서는 날, 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비난할 대상도, 책임을 물을 주체도, 질문에 답할 목소리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만든 침묵하는 신, 생각 없는 신, 지독히도 무관심한 신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긴 민족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리에 앉았다.

의사당은 여전히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발언대 맞은편의 침묵하는 기운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절차만이 중단 없이 이어질 뿐이었다.